

"그만 두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성착취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하면
오히려 처벌을 받거나 인신매매될 것을
두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성매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아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의정부

두레방 : 031-841-2610
경기북부 여성폭력 이동 상담소 : 031-876-7545

● 동두천

다비타의 집 : 031-861-0955
새움터 : 031-867-4655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 031-867-3100

● 파주

성폭력 상담소 '뜰' : 031-948-9091

● 평택

새움터 : 031-663-4655
햇살센터 : 031-618-5535

● 서울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02-3147-1505

신고: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여성상담실
여성폭력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피해 구제 법률상식

윤락행위등방지법안 제2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조항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에 의거하여
윤락강요는 처벌되며 피해여성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실천

하나. 선언합니다!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인권과 평등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 항의합니다!

성매매를 부추기는 언론에 항의합니다.

불법업소 광고가 신문, 잡지, 인터넷에 버젓이 실리고 있습니다.

셋. 바깥시다!

양성평등 세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성매매, 성폭력은 기부장적 가치관과 여성의 낮은 지위에서 시작됩니다.

넷. 신고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과,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

모든 시민이 성매매를 신고합니다. 성매매는 범죄입니다.

다섯. 성매매 방지법안 통과!

국회 계류중인 성매매방지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

국회에서 바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줍시다.

여섯. 후원하세요!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여성단체들에 후원, 또는 자원활동을 함으로써,

성매매 없는 평등세상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요
성매매 없는 세상

일러스트-윤향미, 강태성

디자인/제작-모던기획 02-2645-7182



My Sister's Place
ДомМоейСестры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번지

116.Kosan-dong, Uijongbu-si, Gyeonggi-do 480-060

Tel. 031-841-2610 Fax. 031-841-2608

E-mail: durebang@hotmail.com

● 후원 / 경기도 제2청사

성매매 없는 세상만들기

성매매
선매매

두레방

My Sister's Place
ДомМоейСестры

성매매 없는 세상만들기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 차별, 학대, 가정불화 등의 사회적, 경제적 이유나, 허위광고, 소개업자의 농간,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산업에 유입됩니다.

그래도 돈벌기가 쉽지 않나요?

허위광고에 속아 들어가지만,

업소를 옮길 때마다 수백만원씩 붙는 소개료, 칠십만원이나 되는 1평짜리 쪽방월세, 세탁비, 화장품값, 심지어 콘돔값까지...

그렇다고 화대가 고스란히 성매매 여성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화대를 반이나 떼이면서도 시간당 삼만원이나 하는 지각비가,

하루에 백만원이나 하는 결혼벌금이 무서워,

성매매여성들은 몸이 아파도 생리를 해도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빛은 줄어들지 않고 쌓여만 갑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을까요?

업주들은 온갖 구실로 부풀린 빚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서로 빚보증을 서게 해서 스스로 감시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이나 감금도 횡행합니다.

또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피해 여성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 빠져나온다 해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상처받은 자존감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적응이 힘듭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을 위한 복지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매매 업주와 알선업자들은 이들을 다시 성매매 업소로 끌어들이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매매 업소가 줄어들면 성폭력도 줄어듭니다.

성매매 종사자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성폭력 비율도 낮습니다.

성욕구를 참을 수 없다는 편견은 성매매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핑계에 불과합니다.

흔히 사창가라고 말하는 성매매 집결지 뿐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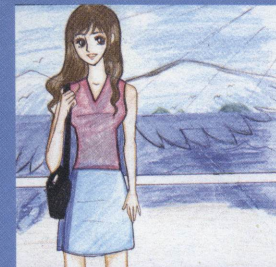
다방, 안마시술소, 룸살롱, 노래방 등

우리 주위의 수많은 곳에서 성매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매매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또다른 '놀이'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범죄일 뿐,

어떤 경우에도 결코 옳지 않습니다.



기지촌의 외국인 전용클럽은 문제가 없을까요?

1945년 미군주둔 이래 한국정부는 기지촌에 외국인 전용클럽을 허가하여

미군이 여성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수십년간 제공해 왔습니다.

기지촌에 한국여성들이 줄어들자 동남아, 러시아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한국 기지촌지역에는 이들 여성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범죄조직의 국내유입과 인신매매 등

또다른 종류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성매매

우리의 일상언어도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윤락 [淪落: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것] 몸을 '파는' 행위만이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보는 불평등한 용어입니다.

매춘 [賣買春: 성(春)을 사고 파는 것] 성을 봄(春)이라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성을 '사는' 욕구를 정당화한 말입니다.

성매매 [性賣買: 성(性)을 사고 파는 것] '성'을 사고 파는 거래의 의미를 부각, 성매매산업으로서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드러내주는 올바른 표현입니다.